

'2019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19.8.27	대전MBC 대회의실	6	7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김선재 위원장, 김종남 위원, 박상민 위원, 임정규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제작부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미디어 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4	6	-	-	11	-	1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1	-	-	11

다. 전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 건	10 건	
편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TV방송 및 콘텐츠 제작	유튜브 및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활용 <19.8월 조치>	'19.7월
교양	인터넷 다시보기 자세한 방송내용 소개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반영 <19.8월 조치>	'19.7월
교양	새롭고 자연스러운 흐름의 방송 제작 (독전)	제작회의를 거쳐 시즌 2의 제작 논의 중 <19.8월 조치>	'19.7월
교양	특집 프로그램의 재밌고 독특한 소재 활용 (금의 전쟁)	의견 수용 <19.8월 조치>	'19.7월
교양	전문지식과 이와 융합된 생활속 지식의 결합 (건강 플러스)	출영-병원과 보다 긴밀한 협의 <19.8월 조치>	'19.7월
교양	다양한 출연진 소개 (다큐에세이 그사람)	타 계열사와의 협의로 중복 억제 <19.7월 조치>	'19.7월
교양	깊이 있는 해설이 계속되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제작 (테마기행 길)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다양한 시도 진행 <19.8월 조치>	'19.7월
교양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 다양한 의견 소개, 균일한 제작 방향 지도 (내가 그리는 세상)	제작팀과 긴밀한 사전 조율 및 방송 품질 향상에 주력 <19.8월 조치>	'19.7월
보도	패널 선정에 좀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	사안에 따라 다양한 패널 섭외 <19.8월 조치>	'19.7월
보도	연속 보도로 집중력있는 뉴스 제작	현재 제작된 시리즈 외에 다양한 시리즈 기획중 <19.8월 조치>	'19.7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명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및 회의록 전문공개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김선재	배재대학교 총장	한국컨텐츠학회	문화단체	19.05.01 ~ 20.04.30
부위원장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병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9.05.01 ~ 20.04.30
위원	박상민	정보철강(주) 부사장	미래경영인모임	경제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서한나	잡지 Boshu 편집장	청년 고리	문화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이규홍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	한국독성학회	과학기술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	19.05.01 ~ 20.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1. 편성·보도 : 대전 MBC 뉴미디어</p> <p><독전>을 계기로 대전MBC의 유튜브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전MBC가 영상수는 적었지만, 구독자수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시청자의 유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유튜브의 구독자수는 방송사에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 방송사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선희 위원)</p> <p>유튜브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안에는 클립별로 간단한 소개 코너가 있는데, 건강 프로그램의 경우, 유튜브 링크시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규홍 위원)</p>	<p>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전MBC가 뉴미디어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클립 설명은 시청자에게 실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편성)</p>	○		
교양	<p>2. 교양 : 생방송 아침이 좋다</p> <p>제작부문의 아침이 좋다는 경우 자주 보고 있는데, 시청자의 호응도 높고, 제작에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 만족스런 방송으로 느껴집니다. (양홍모 위원)</p> <p>8월 26일 아침이 좋다는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선선해진 날씨, 책에 대한 내용이 어울리는 날씨여서 책에 대한 사진과 시청자의 의견을 받는 시청자의견코너는 시의적절했습니다. 다만, 여자 진행자의 경우 큐카드를 테이블에 놓고 바라보고, 멘트를 던지는 모습은 조금 불편해보여,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을가 하는 의견입니다. (권부남 부위원장)</p>	<p>9월 개편을 맞아 새로운 진행자를 기용해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제언하신 부분까지 포함해 더욱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		
교양	<p>3. 교양 : 건강플러스</p> <p>건강 프로그램인 건강플러스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전문가의 자세한 견해를 보여주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코너이후 의사가 치료와 예후까지 알려주어, 굉장히 학구적인 느낌이며, 길지 않은 시간</p>	<p>매주 전문의가 바뀌면서 출연하는 상황이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에 많은 정보를 알려주어 좋았지만, 일반 시청자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고민을 공유합니다. 출연 의사의 경력이나 나이에 따라, 일반인에게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기도 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다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p> <p>그리고, 음식과 건강에 대한 코너에서 한의사가 도라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기침, 가래에 좋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미세먼지에 좋다>라는 언급은 보다 학구적인 탐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보다 세심한 제작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와 도라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방송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규홍 위원)</p>	<p>지속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p>			
교양	<p>4. 교양 : 다크에세이 그 사람</p> <p>8월 14일에 방송된 <영원한 실버짜깁>은 영화 같은 인트로, 편집의 유연한 연결되는 수작이라는 느낌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다만 처음과 마지막 자막에서 도움주신 분들이라는 자막이 보다 모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p> <p>8월 7일, 수향 김문숙에 대한 방송은 노년기의 인물을 다루는 점에서 아직은 젊은 제가 보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좋았습니다. (서한나 위원)</p>	<p>긍정적인 평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자막의 경우 휴먼 다크의 특성 상 비교적 간단한 포맷으로 운영하다보니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담당PD와 공유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		
교양	<p>5. 교양 : 테마기행 길</p> <p>여행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테마기행을 많이 시청합니다. 좋았던 점은 의식적으로 공부하거나, 안내판을 읽지 않으면 알지 못할 내용을 해설과 함께 알려주어 무척 유익했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거나, 해설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은 보다 세심하게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김병구 위원)</p>	<p>오류가 없도록 제작에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6. 교양 : 전국이 보인다</p> <p>전국이 보인다는 지역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오프닝과 클로징이 에피소드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심한 제작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양선희 위원)</p>	<p>지적에 공감합니다. 제작 담당자와 공유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		
교양	<p>7. 교양 : 내가 그리는 세상</p> <p>제작부분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은 충남대 등 4개 대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정통 미디어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과 형식의 편차가 굉장히 커서,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모호해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홈페이지 상에 제시된 주제와 과연 부합하는가 ? 를 함께 고민하고 제작방향에 대한 공유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양선희 위원)</p>	<p>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당시부터 가졌던 의문에 대한 지적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제작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청자제작단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스터디를 통해 좀더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p>	○		
교양	<p>8. 보도 : 노정렬의 시사각각</p> <p>시사프로그램 시사각각에서 일본과 관련한 충청권의 타격 등의 주제에서 토론자 전원이 남성인 성비는 조금 불편했습니다.</p> <p>8월 25일 방송도 마찬가지로여서, 토론자 선정시 보다 다양한 성비를 갖추었으면 싶습니다. (서한나 위원)</p> <p>시시각각과 같은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고, 패널 섭외부터가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출연자가 식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가뉴스에서 지역정치인들이 출연하는데, 중복출연</p>	<p>시시각각 패널의 성비 부분과 정가 이슈의 반복 출연에 대한 고민은 제작진 좀더 판단해볼 여지가 많은 문제입니다. 다신 한번 제작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하는 정치인들의 자기홍보의 장처럼 느껴지기도 하여, 조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방송에서는 지역의 아젠다를 광범위하게 다루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타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보다 깊이 있는 주제를 소재로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병구 위원)</p>				
<p>보도</p>	<p>9. 보도 : 광복절 경축식</p> <p>광복절 경축식 관련 뉴스도 2004년의 경축식 자료와 함께 보도해 색다른 느낌이 좋았는데, 이와 관련해,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자료나 영상자료는 유튜브에 올려 시청자와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양선희 위원)</p> <p>8월 13일 뉴스데스크 독립기념관 15년만의 기념식의 2004년 영상 부분은 <오늘 광복절...> 이라는 멘트가 좀 거슬렸습니다. 자료 영산이기는 하지만, 8월 13일에 <오늘 광복절...>등은 사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부남 부위원장)</p>	<p>대전MBC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 뉴스 자료를 <그때 그뉴스> 형식으로 게시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부에서 테이프를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시 더 많은 자료를 업로딩하겠습니다.</p>	○		
<p>보도</p>	<p>10. 보도 : 폭염, 기후, 지역에너지 관련</p> <p>폭염관련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온도나 물가 상승, 가축 폐사, 온열환자, 착한 에어컨까지 다양한 뉴스를 보도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폭염의 원인이 되는 기후 위기 - 요즘은 기후 위기, 기후 파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세계적인 폭염과 관련된 동향을 결들였으면 싶습니다. 제작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보도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다루었으면 싶습니다. (양홍모 위원)</p> <p>환경문제 관련 뉴스중 폭염을 다룬 뉴스는 환경부 폭염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못하면 맞을 수 있는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를 보도하여 긍정적인 보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응방법 제시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양선희 위</p>	<p>대전MBC 뉴스는 지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에너지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시대에 '탈석탄화'의 대안을 찾는 현장을 찾아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원)</p> <p>최근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후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중인데, 에너지 자치와 분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자치 시대, 지역의 준비 등을 보다 많이 보도 했으면 합니다. (양홍모 위원)</p>				
<p>보도</p>	<p>11. 보도 : 뉴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p> <p>독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집중보도 등으로 좋은 방송을 이어가고 있어 전체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학대의 비리나 이후의 결과까지 보도하여 시청자위원으로서 반갑게 시청했습니다. (양홍모 위원)</p> <p>뉴스에서는 일본의 경제제재 관련 보도가 많았는데, 산업적 발전에 초점이 있었다가, 정치경제 사회문화 쪽으로 관점이 이동해서 합리적 보도라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 인터뷰에서는 핵심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간결하고 명확한 보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p> <p>아산지역 학생들과 기자가 동행취재 했던 상해 임시정부 관련 뉴스는 현장감도 있고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시청자를 위한 뉴스라는 생각입니다. 천안시와 축협이 계약에서 대한 뉴스에서 상대적 약자인 지자체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 아닌가하는 비판 기사는 시의적절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양선희 위원)</p>	<p>작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용균 씨의 산업재해를 다룬 보도(뉴스데스크)는 최근 한국방송대상 뉴스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언론의 기본 사명인 권력과 자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고발에 앞으로도 충실할 것입니다. 일본 경제 도발과 관련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다각도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올해 뜻깊은 독립운동 관련 보도도 꾸준히 전달하겠습니다.</p>			